EAI 여론브리핑 제30호 (2008. 6. 14)

EAI • 중앙일보 공동
2008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 2008한국 거버넌스 구조연구 :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1.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요약...신창운 · 정한울
2.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강원택
3.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이현우
4. 조사개요 및 기초분석 결과...정한울

○ 조사방법

본 프로젝트는 3일에 걸친 전화조사를 통해 전체 33개 파워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평가했다. 5월 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84명, 29일 607명, 6월 2일 635명을 대상으로 서로 상이한 11개 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각각 평가토록 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선정했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4.1%포인트다.

○ 조사 참여 연구팀

우리 사회 파워조직 25곳(전체 33곳 중 언론사 8곳 제외)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분석한 이번 여론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 시민정치패널팀이 질문항목을 설계하고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화조사와 자료처리를 담당했다.

[조사연구팀]

EAI 연구팀

위원장 강원택 EAI 여론분석센터 시민정치패널 팀장, 숭실대
위 원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이현우 서강대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간 사 곽소희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원

중앙일보 연구팀

중앙일보 조사 연구팀
신창운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위원

❑ 2008 파워조직 영향력 및 신뢰도 순위

파워조직 영향력 및 신뢰도 순위

영향력

2008년			2007
순위	기관	점수	순위
1	삼성	7.06	1
2	현대차	6.73	2
3	SK	6.38	3
4	LG	6.24	6
5	헌재	6.21	4
6	검찰	6.19	5
7	대법원	6.10	7
8	국세청	6.09	9
9	청와대	5.96	14
10	경찰	5.88	10
11	감사원	5.79	-
12	한나라당	5.67	12
13	전경련	5.52	11
14	국정원	5.05	16
15	전교조	4.90	15
16	교총	4.85	13
17	경실련	4.75	17
18	참여연대	4.71	18
	민변	4.71	19
20	한국노총	4.65	20
21	민노총	4.54	22
22	민주당	4.34	25
23	뉴라이트	4.26	21
24	민노당	3.90	24
25	자유선진당	3.67	-

신뢰도

2008년			2007
순위	기관	점수	순위
1	현대차	6.19	2
2	SK	6.02	3
3	LG	5.86	5
4	삼성	5.80	1
5	헌재	5.75	4
6	대법원	5.60	6
7	감사원	4.93	-
8	국세청	4.83	8
9	경찰	4.78	9
10	전경련	4.75	10
11	참여연대	4.64	14
12	검찰	4.63	12
	민변	4.63	17
14	경실련	4.44	16
15	교총	4.43	13
16	전교조	4.39	19
17	청와대	4.27	20
	국정원	4.27	18
19	한국노총	4.12	21
	민노총	4.12	21
21	한나라당	4.11	15
22	민주당	3.96	25
23	뉴라이트	3.94	10
24	민노당	3.89	23
25	자유선진당	3.52	-

※표 읽는 법 : 10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순위를 매겼지만, 두 조직의 점수 차이가 0.15점 이하일 경우 통계적으로 순위 의미가 없음.

제4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요약

신창운(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위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한국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은 주요 대기업과 사법부,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으로 밝혀졌고, 주요 정당들은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집단으로 조사됐다. 또 보수 성향 조직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데 비해 진보 성향 조직의 신뢰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8 파워조직 25곳 영향력과 신뢰도 평가' 조사 결과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은 영향력과 신뢰도 양쪽에서 1~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영향력은 1위(7.06점)였지만 최근의 비자금 사건 여파로 인해 지난해 1위(6.55점)에서 올해 4위(5.80점)로 신뢰도 순위가 하락했다. 헌재와 대법원은 대기업에 이어 가장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등 전통적 권력기관들도 한국사회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조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권력 크기 만큼의 신뢰를 얻지 못해 영향력 대비 신뢰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지만(4.89점→5.96점),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4.03점→4.27점).

2008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진보 성향의 시민·이익단체 신뢰는 상승한데 비해 보수 성향 조직들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가령 참여연대 신뢰도는 지난해 14위에서 11위로 오른데 비해, 뉴라이트 신뢰도는 10위(4.91점)에서 23위(3.94점)로 크게 떨어졌다.

주요 정당에 대한 믿음은 올해도 바닥을 면치 못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10점 만점에 신뢰도 4.11점으로 25개 파워조직 중 21위에 그쳤다. 통합민주당 22위(3.96점), 민주노동당 24위(3.89점), 자유선진당 25위(3.52점) 등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3일에 걸쳐 전화로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84명, 29일 607명, 6월 2일 635명을 대상으로 서로 상이한 11개 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각각 평가토록 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선정했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4.1%포인트다.

어떻게 조사했나

우리 사회 파워조직 25곳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평가한 이번 여론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 시민정치패널팀이 질문항목을 설계하고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화조사와 자료처리를 담당했다.

전통적 권력기관·입법부·사법부·시민단체·이익단체·언론사 등 33개 파워조직에 대해 평가토록 했다. 영향력 조사는 '전혀 영향력 없음' 0점과 '매우 영향력 높음' 10점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신뢰도 역시 '매우 불신'(0점)과 '매우 신뢰'(10점) 사이에서 응답토록 해 평균 점수를 산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과 주요 종합 일간지 등 8개 언론사는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나 분석에선 제외했다. 조사기관인 중앙일보가 평가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분석대상은 25개 조직이다.

33개 조직에 대해 영향력과 신뢰도를 각각 물을 경우 응답자는 66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전화조사를 통한 최대 허용 질문 개수가 15~20개임을 감안해 조사대상 조직을 세 묶음으로 나눠 사흘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조사대상을 묶는 방식과 시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를 감안해야 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시민정치패널팀

강원택(팀장 ·숭실대)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이현우(서강대) 교수,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곽소희(EAI 연구원)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기반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2005년 이후 네 번째 실시한 파워기관 신뢰도, 영향력 조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인해 변화된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취임초기부터 나타난 민심이반 현상을 타개하고 국정을 추슬러야 하는 이명박 정부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법과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들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은 물론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영향력 평가는 이전 조사 때에 비해서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기관들의 영향력은 늘어났다고 평가했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통치기관과 법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법 기강과 공권력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한 최근의 촛불집회가 정부의 강경 대응 과정에서 '불복종'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이다.

보다 균형 있고 통합적인 국정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국정운영에서 보수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다른 한편에 현 정부를 견제하려는 국민들의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승리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 정국을 예측할 때 보수의 확산에 주목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보수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반면, 진보 집단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된 진보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커졌다는 사실은 정치적 균형을 원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두 분야에서 모두 대기업이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의 신뢰도는 작년 조사에 비해 하락했다.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비해 민노총, 노총 등 노동단체에 대한 영향력, 신뢰도 평가는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실망한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노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단체의 영향력과 신뢰도의 증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주목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친기업정책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반노동'이나 노동의 배제로 귀결될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정책의 기반과 관심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뢰도 감소가 우려할 수준/ 높은 영향력, 낮은 신뢰도 여전

이현우(서강대)

올해도 2005년 조사한 이래로 항상 영향력에 비해 신뢰도가 낮았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영향력 전체평균은 5.4점이고 신뢰도 평균은 4.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중요한 조사대상 기관들의 영향력은 높은 편이지만 이들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신뢰도가 5점이 넘는 기관은 25개 중 6개 뿐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신뢰도가 작년에 비해 낮아진 기관들이 무려 13개나 되었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그 이전해와 비교하여 신뢰도가 낮아진 기관이 6개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신뢰도 하락기관이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넘고, 조사대상 기관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제도신뢰성(institutional confidence)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신뢰성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대의적 민주주의의 약화가 나타나고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간여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신뢰도가 두드러지게 낮아진 기관들은 뉴라이트(-0.97), 삼성(-0.75), 한나라당(-0.37), 검찰(-0.24), 국세청(-0.2)순이다. 뉴라이트는 영향력도 낮아졌다(-0.12). 노무현정부에서 뉴라이트는 진보에 대한 비판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것이 영향력과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지난 3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출판하면서 이념 논쟁을 유발하였던 것이 뉴라이트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삼성은 비자금특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다. 흥미로운 것은 신뢰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에서는 2006년이나 2007년 조사결과보다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삼성관계자들의 사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의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기관이 작년에 비해 영향력은 높아졌지만 신뢰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이들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의 비리사건과 삼성수사등과 관련된 의혹 등을 통해 국민들은 실망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집단별로 분류해서 볼 때 기업의 영향력(6.6)과 신뢰(6.0)가 높고 헌재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도 두 가지 기준에서 각각 6.2점과 5.7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환경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권력기관과 정당에 대한 평가에서 신뢰도가 모두 5점 이하인 것은 국민의사의 반영이 부족하고 국가운영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모두 5점 이하로 평가되는 것은 아직도 국가권력에 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역할을 더 중요해져야 한다.

2008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결과

* 조사대상(조사일자)
[샘플A] 1. 청와대 2. 국정원 3. 대법원 4. 통합민주당 5. 한나라당 6. 참여연대 7. 경실련 8. 한국노총 9. 민주노총 10. 삼성 11. LG (5.28)
[샘플B] 1. 국세청 2. 검찰 3. 경찰 4. 헌법재판소 5. 자유선진당 6. 민주노동당 7. 민변 8. 뉴라이트 9. 전경련 10. 전교조 11. 교총 (5.29)
[샘플C] 1. 현대자동차 2. SK 3. KBS 4. MBC 5. SBS 6. 조선일보 7. 중앙일보 8. 동아일보 9. 한겨레신문 10. 오마이뉴스 11. 감사원 (6.2)

1. 언론제외 25개 기관 신뢰 영향력 평균점수표 (화살표는 2007년 순위 대비 변동)

년도	2008				2007				2006				2005			
분류	영향력	순위	신뢰도	순위	영향력	순위	신뢰도	순위	영향력	순위	신뢰도	순위	영향력	순위	신뢰도	순위
삼성	7.06	1	5.8	4 ↓	7	1	6.55	1	6.97	2	6.34	2	7.17	1	6.8	1
현대차	6.73	2	6.19	1 ↑	6.59	2	6.25	2	7.14	1	6.69	1	6.94	2	6.77	2
SK	6.38	3	6.02	2 ↑	6.4	3	6.01	3	6.5	3	6.3	3	6.45	4	6.33	3
LG	6.24	4 ↑	5.86	3 ↑	6.08	6	5.85	5	6.06	5	5.79	4	6.22	6	6.07	5
현재	6.21	5 ↓	5.75	5 ↓	6.28	4	5.86	4	6.36	4	5.77	5	6.5	3	6.19	4
검찰	6.19	6 ↑	4.63	12	6.17	5	4.87	12	5.97	7	4.6	10	6.12	7	4.79	9
대법원	6.1	7	5.6	6	6.07	7	5.65	6	5.77	8	5.14	7	6.31	5	5.78	6
국세청	6.09	8 ↑	4.83	8	6	9	5.03	8	5.74	9	4.61	9	5.77	10	4.68	15
청와대	5.96	9 ↑	4.27	17 ↑	4.89	14	4.03	20	4.93	13	3.69	21	5.56	11	4.34	19
경찰	5.88	10	4.78	9	5.83	10	4.92	9	6.02	6	5.14	6	6.11	8	5.03	7
감사원	5.79	11	4.93	7	.	.	.	.	.	.	.	.	.	.	.	.
한나라당	5.67	12	4.11	21 ↓	5.17	12	4.48	15	5.21	11	4.45	13	5.12	14	4.56	17
전경련	5.52	13 ↓	4.75	10	5.63	11	4.91	10	5.66	10	5.02	8	5.92	9	4.7	12
국정원	5.05	14 ↑	4.27	18	4.8	16	4.34	18	4.71	18	4.01	18	4.99	16	4.05	22
전교조	4.90	15	4.39	16 ↑	4.81	15	4.26	19	4.84	15	4.09	17	5.08	15	4.7	13
교총	4.85	16 ↓	4.43	15 ↓	4.95	13	4.6	13	5.01	12	4.47	11	4.98	17	4.6	16
경실련	4.75	17	4.44	14 ↑	4.72	17	4.48	16	4.85	14	4.47	12	5.2	13	4.76	11
참여연대	4.71	18	4.64	11 ↑	4.7	18	4.57	14	4.79	16	4.42	15	5.28	12	4.98	8
민변	4.71	18 ↑	4.63	12 ↑	4.57	19	4.47	17	4.63	19	4.35	16	4.75	22	4.79	10
한국노총	4.65	20	4.12	19 ↑	4.51	20	3.85	21	4.38	20	3.69	21	4.89	18	4.29	20
민노총	4.54	21 ↑	4.12	20 ↑	4.32	22	3.85	21	4.31	21	3.69	21	4.81	21	4.29	21
통합민주(열)	4.34	22 ↑	3.96	22 ↑	3.34	25	2.95	25	3.55	24	2.98	24	4.83	20	3.98	23
뉴라이트	4.26	23 ↓	3.94	23 ↓	4.38	21	4.91	10	4.75	17	4.44	14	4.83	19	4.7	14
민노당	3.9	24	3.89	24 ↓	3.49	24	3.62	23	3.83	23	3.74	20	4.45	23	4.53	18
자유선진당	3.67	25	3.52	25	.	.	.	.	.	.	.	.	.	.	.	.
민주당	.	.	.	.	3.56	23	3.33	24	3.9	22	3.76	19	.	.	.	.
선관위	.	.	.	.	6.02	8	5.51	7	.	.	.	.	.	.	.	.

*** 조사결과 기초분석**

- 대기업이 영향력 신뢰도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 폭로로 밝혀진 삼성 비자금 사건의 여파로 삼성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7.06점)으로 인식되면서도 신뢰도에서는 지난 해 1위에서 4위로, 점수로 보면 6.55점에서 5.80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 사법기관(헌재/대법원)이 대기업에 이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경우 비교적 영향력의 크기와 신뢰도 격차가 크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등 권력기관들은 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경우 신뢰도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들이 행사하는 권력의 크기에 부합하는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의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4.89→5.96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2007년 조사에 비해 약간 상승(4.03점-> 4.27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범 100일 전후의 새 정부의 신뢰도로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시민단체, 이익단체의 경우 진보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한 반면 보수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참여연대의 경우 신뢰도 11위로 지난해(14위)에 비해 국민들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으며 경실련, 전교조, 민변 등도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변은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2위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말기 주목받은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급감했다. 2007년 10위(4.91점)에서 2008년 21위(3.94점)로 떨어져 하위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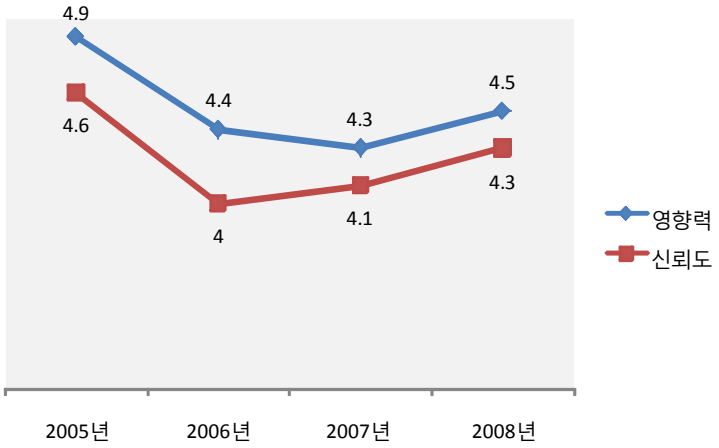
- 정당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영향력(5.67점)이 12위에 그치고 있다. 정부출범 이후 여당으로서의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뢰도 차원에서 보면 한나라당 21위, 통합민주당 22위, 민주노동당 24위, 자유선진당 25위로 조사 대상 25개 기관 중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 집단별 분석 : 진보의 회생과 보수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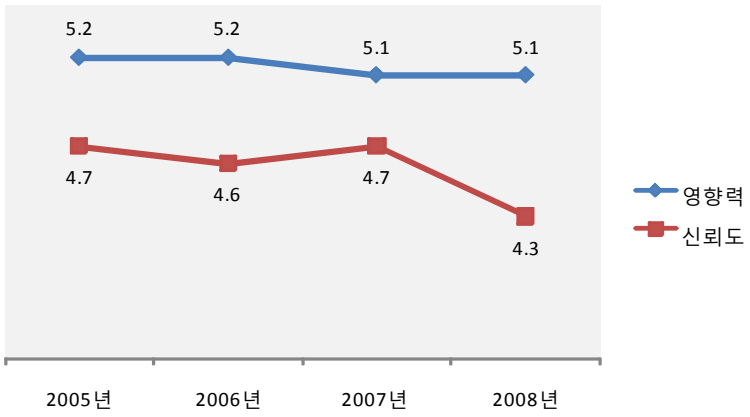
(1) 진보(참여연대/경실련/민변/전교조/민노총/통합민주당/민노당) vs 보수(뉴라이트/전경련/교총/한나라당)

보수집단 중 새로 조사에 포함된 자유선진당 제외한 4개 기관의 영향력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신뢰도는 2008년 신정부 하에서 4.3으로 하락경향이 뚜렷하다.

진보



보수



Descriptives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for Mean Lower Bound	Upper Bound	Minimum	Maximum
영향08	0	7	6.18	0.76	0.29	5.47	6.88	4.65	7.06
	진보집단	7	4.53	0.31	0.12	4.24	4.81	3.9	4.75
	보수집단	5	4.79	0.84	0.38	3.75	5.84	3.67	5.67
	Total	19	5.20	0.99	0.23	4.73	5.68	3.67	7.06
신뢰08	0	7	5.43	0.86	0.32	4.64	6.22	4.12	6.19
	진보집단	7	4.30	0.31	0.12	4.01	4.58	3.89	4.64
	보수집단	5	4.15	0.47	0.21	3.57	4.73	3.52	4.75
	Total	19	4.68	0.82	0.19	4.28	5.07	3.52	6.19

(2) 영역별 신뢰 영향력

영역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나 사법기관만이 민의에 기반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거버넌스 체제를 주도하고 있고 주요 권력기관들은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만 새정부의 권력기관들은 가 집권초기 국정난맥과 국정지지율의 추락을 급락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커진 힘에 비해 신뢰기반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정당/시민단체/이익집단 등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정당은 영향력과 신뢰도 면에서 급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 신정부에 들어와 권력기관 및 정당 등 정치세력들이 그 영향력 및 신뢰기반을 회복해가는 추세지만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경우 별 개선이 없거나 후퇴하는 경향까지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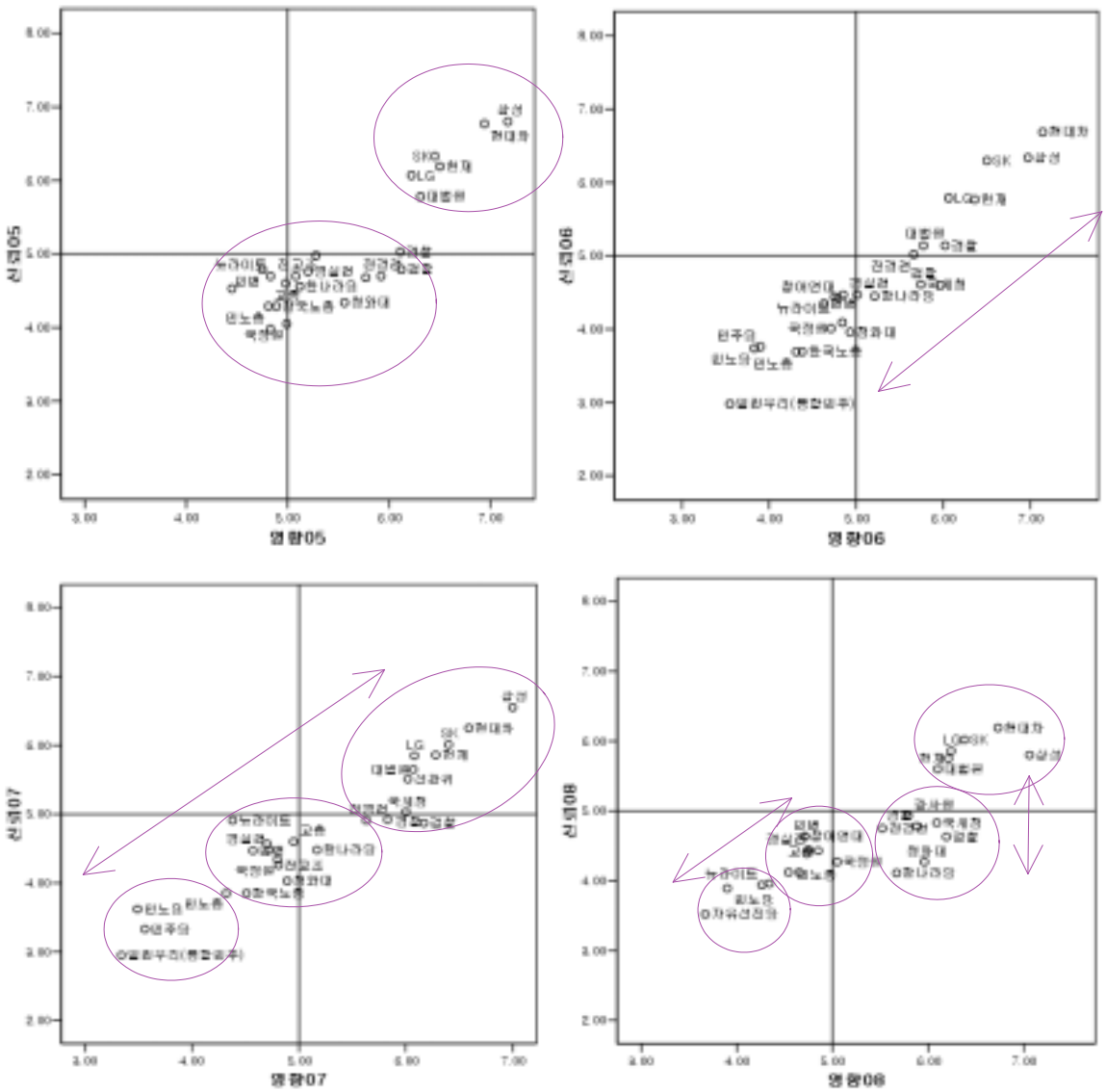
[감사원 및 자유신당 포함 시]

구분	영향력				신뢰도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기업 (삼성,SK,현대차,LG)	6.7	6.7	6.5	6.6 ↑	6.5	6.3	6.2	6.0 ↓
권력기관(청와대,국세청,감사원,검.경찰,국정원)	5.7	5.5	5.5	**5.8 ↑**	4.6	4.5	4.6	4.6 =
사법부(헌법재판소,대법원)	6.4	6.1	6.2	6.2 =	6.0	5.5	5.8	5.7 ↓
정당(한나라당,통합민주,민노,자유신당)	4.8	4.1	3.9	**4.4 ↑**	4.4	3.8	3.6	**3.9 ↑**
시민단체(참여연대,경실련,뉴라이트,민변)	5.0	4.8	4.6	4.6 =	4.8	4.4	4.6	**4.4 ↓**
이익집단(전경련,민노총,한노총,전교조,교총)	5.1	4.8	4.8	4.8 =	4.5	4.2	4.3	4.4 ↑

[감사원 및 자유신당 제외 시]

구분	영향력				신뢰도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기업 (삼성,SK,현대차,LG)	6.7	6.7	6.5	6.6 ↑	6.5	6.3	6.2	6.0 ↓
권력기관(청와대,국세청,검.경찰,국정원)	5.7	5.5	5.5	**5.8 ↑**	4.6	4.5	4.6	4.6 =
사법부(헌법재판소,대법원)	6.4	6.1	6.2	6.2 =	6.0	5.5	5.8	5.7 ↓
정당(한나라당,통합민주,민노)	4.8	4.1	3.9	**4.6 ↑**	4.4	3.8	3.6	**4.0 ↑**
시민단체(참여연대,경실련,뉴라이트,민변)	5.0	4.8	4.6	4.6 =	4.8	4.4	4.6	**4.4 ↓**
이익집단(전경련,민노총,한노총,전교조,교총)	5.1	4.8	4.8	4.8 =	4.5	4.2	4.3	4.4 ↑

3. 산포도 도표



시기별 특징

기업/사법기관 주도형 거버넌스와 권력기관의 신뢰기반 취약(2005) → 진보세력의 권력/신뢰기반 위축(2006-2007) → 기업/집권세력 신뢰기반의 약화로 인한 영향력 대비 신뢰기반 갭 확대, 진보세력의 세력 및 지지기반 회복세(2008).

각 기관의 영향력/신뢰도평가 평균점수의 산포도를 살펴보면 2005년 기업/사법기관이 상당한 신뢰기반 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거버넌스체제를 이끌어가는 국면이었다.

2006년/2007년을 거치면서 집권세력(여당-청와대-진보세력)이 급격하게 영향력과 신뢰기반을 상실하면서 영향력/신뢰도 평가에서 층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기업>사법>집행형 권력기관> 보수적 정당/이익/시민단체> 진보 정당/단체 순으로 신뢰기반 및 영향력 크기의 서열이 정해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 상황에서 기업에 이어 집권세력(보수/집행형 권력기관)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이들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그 권력기관들의 영향력 대비 신뢰기반은 취약해지고 있다. 그 반대급부로 진보집단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면서 권력구조 내에서 힘의 분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집권세력 및 보수적 시민단체/이익단체들의 정치적 신뢰기반이 급격하게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